

제3차 한·중·일 결핵연구소 학술포럼을 다녀와서

글 강미경(결핵연구원 기술협력과장)

지난 9월 일본에서 개최된 결핵연구소 학술포럼은 금년으로 탄생 3주기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역 분류상 서태평양 지역에서 결핵에 관한 전문성과 기여도가 높은 한국·일본·중국 결핵연구원들의 학술교류모임으로서 매년 1개국씩 참가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데 2000년에 중국에서 제1차, 그리고 작년에 서울에서 제2차 포럼이 있었고 내년엔 다시 중·한·일 결핵연구소 학술포럼을 중국이 준비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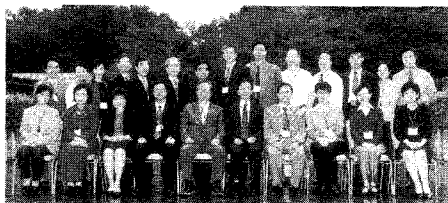
회의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 포럼은 결핵에 관한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원들의 모임이어서 매년 5명씩 참가대상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낮은 인원은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매우 우호적이며 친밀감이 높아서 서툰 영어표현에도 용감해지게 되어 토론내용이 매우 진지하고 발표되는 주제들도 결핵의 임상부터 역학까지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진다.

세균학자인 연구원장님과 결핵전문 의, 간호, 보건, 분자생물 등 다양한 멘

버로 구성된 금년도 우리 참가팀은 같은 비행기로 나라따 공항에 닿았고 공항에서 우리를 맞아준 일본 결핵연구소 직원들의 따뜻하고도 세심한 영접, 사전 3개(한글, 일본어, 영어)를 가지고 다니며 일일이 우리말 설명을 해 주려고 애쓰는 정성에 감탄하며 전철역에까지 나와 우리 일행을 기다려준 일본 연구소장님, 부소장님과 함께 화산도시 고탐바로 향했고 이미 그 기차 안에서 비공식포럼은 시작되었다.

비어있는 자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좁히고 모여 앉아 서로 식구들의 안부를 묻고 다음날 일정을 의논하느라 창 밖도 내다보지 못한 채 도착한 고탐바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깨끗하고 정돈된 중소도시의 저녁이 준비되고 있었다.

20명 정도 소규모의, 그것도 국제회의를 유치할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숲속의 호텔은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기품있는 아름다움과 내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하였고 회의순서, 식사는 물론 휴식시간까지 상세한 시간 배정표,



결핵연구소 학술포럼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결핵에 관한 기여도가 높은 한국·일본·중국 결핵연구원들의 학술교류모임이다

크리스마스 썰이 부착된 명찰, 각종 정보 이용 안내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준비된 행사는 그들의 평소 깔끔함과 철저한 준비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중국연구소측 참가자 6명은 모두가 외과의로서 대부분 한국을 다녀갔거나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매우 반가운 해후를 소란스럽게 하고 저녁만찬이 시작되었는데 식사나 친절한 매너 등도 훌륭했지만, 대회장격인 일본 결핵연구소장님 인사의 첫 멘트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라는 유창한 우리말이어서 놀라웠다. 일본의 결핵원로급 인사들께서도 함께 자리하여 옛날 결핵이야기 등과 함께 우리 후진들의 노력을 치하했고 특히 국제 결핵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활약에 대한 기대 등을 보여주어 의미가 컸다.

다음날부터 공식적인 일정에 들어간 포럼은 각 국가의 연구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고 첫 번째 주제가 “결핵교육과 기술지원”이었다.

첫 연자인 기술협력부장께서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국제 결핵관리과정”에 관한 발표를, 나는 “투베르쿨린

판독자의 훈련방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는데 투베르쿨린검사에 있어 발적 판독을 실시해오고 있는 일본이 최근에 국제표준에 맞도록 경결판독으로 바꾸기 위한 훈련을 계획중이어서 방법에 대한 상세한 질문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일본연구소가 실시하고 있는 국제, 국내 결핵교육의 소개와 보건소, 주로 보건간호사들의 활동에 관한 내용들이 발표되었는데 일본은 우리와 시스템이 조금 달라서 결핵진단이나 투약치료는 병의원에서만 실시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요원의 가정방문에 의한 보건교육이나 추구관리만 실시하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보건요원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더욱이 일본은 최근에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하여 결핵긴급사태가 선언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 비하여 결핵문제 크기 자체가 매우 적은 국가로서 우리나라에 비하여 20여 년 정도 결핵관리의 개선이 앞서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

※지면 관계상 본 내용은 다음호에 이어집니다